

2019년 9월 22일

시편 79편

- 1 하나님,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,
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,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
- 2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주검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,
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,
- 3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,
희생당한 이들을 묻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
- 4 우리는 이웃에게 조소거리가 되고,
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.
- 5 주님, 언제까지입니까?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?
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?
- 6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
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 주십시오.
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부어 주십시오.
- 7 그들은 야곱을 잡아삼키고,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.
- 8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.
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.
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.
- 9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,
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.
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,
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.
- 10 어찌 이방인들이 "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?" 하면서
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?
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을,
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 주십시오.
- 11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 주십시오.
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 주십시오.
- 12 주님,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
그들의 품에다가 일곱 배로 갚아 주십시오.
- 13 그 때에 주님의 백성,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 떼인 우리가,
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립니다.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립니다

죄런 키에르케고르의 기도

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혀주소서.

제게 평안을 주소서.

오, 하나님, 이 마음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,

거센 폭풍을 잔잔하게 하소서!

잠잠하라, 내 영혼아,

주님이 그 영혼 속에서 행하실 수 있게,

잠잠하라, 내 영혼아,

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게

주님의 평안이 나를 덮을 수 있도록!

오, 하늘에 계신 아버지,

우리는 종종 세상이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.

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깊이 느끼게 하소서.

주님과 맺은 언약의 진리를 알게 하소서.

온 세상이라도 주님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.